▶▶ 매일 INDEX

4면
이웃 간 품앗이 방식 보육공간 조성
'야호에코 공동육아나눔터 개소식'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음 10월 10일) 제2666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국회 · 정부 예산 '키맨' 집중 공략

전북도 지휘부, 연일 국회 예결위 대응활동 올인
김태년 민주 원내대표 등 만나 전폭적 지원 건의

전북도가 3년 연속 국가예산 7조원대 확보를 위해 예산안 확정에 영향력이 큰 국회와 정부의 '키맨'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주는 국회 예결소소위가 진행돼 막판 증액사업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도 지휘부가 연일 예산확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25일 국회를 찾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수영 국민의힘 예결소위원회 위원,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을 각각 만나 도정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2021년 국가예산 반영 막바지 활동에 나섰다.

도는 이번 주를 내년도 예산 반영에 있어 예결위 심사단계까지 도와 시군,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를 기반으로 순조롭게 진행된 전북도의 주요 예산에 대해 예결소소위에서 기재부가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받게 되면 한 해 예산농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게 되는 중요한 시점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막판 행정력 집중 여하에 따라 예산반영 상황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최종 예산 의결에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기재부 제2차관 등을 대상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설득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송 지사는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각각 면담하면서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총사업비 증액 및 내년도 국비 103억원 반영과 전북의 우수한 국학자원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50억원 반영 등 4개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송 지사는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는 현대중공업 가동중단 이후 조선산업 위기극복과 지립역량 확보를 위해서 '조선해양설치 운송인프라구축사업' 50억원, '탄소산업진흥원 운영' 752억, '장애인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8억원 등 최우선 핵심 5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전북 담당 국민의힘 박수영 예결소위위원을 만나서는 상임위 증액 의결액에 대한 방어 활동 및 과소·미반영,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등 핵심사업에 대해 예결위 단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한편, 예결소소위 진행과 더불어 내년 국가예산이 의결되는 마지막까지 전북도는 지역 주요사업 예산의 증액에 대해 기재부에서도 수용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기재부 방문활동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는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면서 3년 연속 7조원대 국가예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송하진 도지사는 25일 국회를 찾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예산안 확정에 영향력이 큰 국회와 정부의 '키맨'들을 각각 만나 도정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2021년 국가예산 반영 막바지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은 송하진 도지사가 도내 주요 현안 사업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하기 직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익산천' 생태하천복원 우수사례 선정

전북도는 25일 환경부가 주최한 2020년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익산시 익산천이 우수하천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북은 지난 2019년 부안 신운천에 이어 2년 연속 환경부 생태하천복원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적극 체계적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복원효과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우수사례 선정은 전북도 추천(10월 21일)과 전북지방환경청 1차 평가(10월 28일)절차를 거쳐, 최종 6개소가 선정됐다.

우수상을 수상한 익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2011년~2017년)은 하천복원(L=2.8km) 및 생태습지 등을 조성했으며, 사업 준공 이후에도 익산천 오염원 제거를 위해 휴폐업축사 매입 및 철거, 바이오 순환림 조성 등을 추진했다.

또한, 사업 준공 후 익산천 수질(T-P, 4.593→0.147mg/L)은 지난 2010년도 대비 97%가 개선됐으며, 악취(복합악취 31 → 4)의 경우 2012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87% 저감됐다.

아울러, 동·식물상도 크게 증가해 익산천은 법정 보호종인 수달, 삵, 황조롱이 등이 서식이 확인됐고 주교제는 붕어, 미꾸리지 등이 서식하는 등 수생태계로의 복원 효과를 거뒀다.

전북도 관계자는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로 선정은 전북도가 하천 수질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도는 새만금 상류하천 수질향상을 위해 하천생태계를 건강하게 회복하는데 노력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도민들이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주 실내체육관 조감도

시민들 생활체육 '메카'
전주 실내체육관 '윤곽'

설계공모 '온 · 경' 당선… 내년 하반기 첫삽 2023년 완공

농구와 배구, 배드민턴 등 국내외 실내 스포츠 대회가 열리고 시민들의 생활체육 메카로 활용될 전주 실내체육관의 윤곽이 드러났다.

전주시는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공모' 심사위원회를 열고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아이엔지그룹건축사사무소가 공동으로 응모한 '온·경(전주의 풍경)'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이번 건축설계 공모는 준공된 지 47년이 돼 노후화된 전주 실내체육관을 전주월드컵경기장 옆으로 이전, 신축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됐다.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된 '온·경'은 심사위원들로부터 "복합스포츠타운 조성계획과 연계성이 뛰어나고 주변의 스포츠공원 등과도 유기적으로 어울릴 수 있도록 배치됐다"며 "건물 벽에 마치 커튼을 친 것처럼 얇은 벽을 만드는 방식인 커튼월(curtain wall) 구조로 외벽을 계획해 외부의 수변공원 및 체육공원과의 개방감을 높인 게 인상적"이라고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당선작을 토대로 다음달 설계용역에 착수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하반기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첫 삽을 뜰 계획이다.

실내체육관은 총사업비 522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1만594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관람석 5000석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농구와 배구, 배드민턴 등 국내·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한 국제 공인규격의 다목적 체육시설로 계획돼 있다.

시는 그간 경기장과 관람석, 주차공간 등이 협소해 불편함이 제기돼왔던 전주실내체육관이 이전, 신축되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관 환경이 제공되는 것은 물론이고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가 육상경기장, 야구장과 함께 복합스포츠타운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각종 국내·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번 건축설계 공모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 전 과정을 전주시청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새로 건립될 전주 실내체육관은 프로농구는 물론 각종 스포츠 경기를 최고의 시설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조성될 것"이라며 "동시에 시민들이 생활체육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북 대표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말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